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통합면접 현장 가보니

“아픈 아들 때문 꼭 일해야” 한파 녹인 취업 열기

1300여명 몰려 번호표 뽑고 대기

“20만원도 좋다” 팔순노인까지 장사진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 고개를 들기 힘들 만큼 강한 눈보라 날렸던 7일 오전. 다시 불어닥친 한파에도 남구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서는 어르신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통합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면접에 참여하겠다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65세 이상 노인들만 1332명에 이른다. 그나마 1999명의 신청자 중 1차 컷트 라인인 서류 심사를 통과한 노인들이다. 이들 노인들 중에서 200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 합격해도 1주일도 3일, 하루 3시간을 일하면 고작 20만원을 받는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시각보다 5시간이나 먼저 와 기다리는 노인들이 300명에 달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선 이효순(여·77)씨는 9시에 맞춰 도착했지만 561번째 대기표를 받았다. 408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이미 빈 자리가 없었다. 계단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60명이 넘었다.

남구청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전에 700명, 오후에 600명씩 오시라고 지난 6일 참여자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9시에 561명, 11시에는 이미 854명이 면접장에 들어왔다.



7일 오전 노인들이 면접에 앞서 본인 확인 절차를 받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면접을 기다리던 이모(여·80)씨는 “몸이 아파 집에 누워있는 아들 때문에 꼭 일을 해야 한다”며 “구청에서 전화해 줬지만 9시에 561명, 11시에는 이미 854명이 면접장에 들어왔다. 5명의 면접관들이 참여자들의 건

강상태와 일에 대한 의지를 3분가량 간단하게 묻고 끝내지만 수백명의 인원이 몰리는 바람에 면접장에서는 곳곳에서 ‘면접관이 너무 적다’,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긴장된 표정으로 면접을 마친 서효순(여·82)씨는 “퇴직하고 집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일하며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귀어 사업에 대한 인기가 높으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일자리사업에 신청하는 인원이 매년 늘고 있고 선발하는 인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진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구 노인일자리사업은 1100명을 선발하며 면접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선발된 인원은 2월 18일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을 제외하고 12월까지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남인복지관 등 9개 수행기관 31개 사업장에서 환경정비,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거동불편 어르신 돌봄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6분 해질 18시 08분 달돋이 05시 23분 달질 16시 11분

기온'뚝'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춥겠다.

구분	지역	기온
광주	구름많음	-10/-2℃
목포	구름많음	-8/-3℃
여수	맑음	-7/-1℃
나주	맑음	-11/-2℃
완주	맑음	-7/-1℃
구례	맑음	-11/-2℃
강진	맑음	-9/-2℃
해남	맑음	-8/-2℃
장흥	맑음	-9/-2℃
순천	맑음	-11/-2℃
영광	구름많음	-12/-3℃
진도	맑음	-7/-1℃
전주	맑음	-11/-3℃
군산	맑음	-12/-4℃
남원	맑음	-14/-3℃
홍산도	구름많음	-6/-2℃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면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면바다 북서~북 2.0~4.0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면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면바다 북서~북 1.5~2.5m

◇주간날씨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날씨 아이콘
최저/최고 기온: -6/1, -4/3, -4/4, -3/4, -2/5, -2/7



“손자들 보러 서울로 갑니다” 설(10일) 앞두고 7일 오후 광주 남구 노대동에 사는 전태두(74)·김순희(68)씨 부부가 두 딸과 막내 아들이 살고있는 서울 송파구로 가기 위해 열차로 향하고 있다. 3자녀 모두 서울에 살아 5년 전부터 역귀성을 한다는 전씨는 “고생해서 내려오는 자식들이 안쓰러워 직접 올라 간다. 어리광부리는 손자들 만날 생각에 가슴 설렌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설 용돈, 친정·시댁 똑같이 20만원씩 드릴 것”

기혼 여성 300명 설문

부모님께 드릴 용돈의 액수는 20만원이 40%로 가장 많았다. 30만원(35%), 10만원(25%) 등의 순이다. 드리고 싶은 설 선물로는 현금(65%)이 1위로 집계됐다. 식품(22%)과 상품권(7%) 등이 뒤를 이었다.

설에 가장 하기 싫은 가사노동으로는 설거지(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솔상 차리기(27%), 차례상 준비(27%), 청소(17%)가 뒤를 이었다. /연습뉴스

영산강 외래 어종 급증...생태계 파괴 대책 시급

공동행동 “4대강 사업 탓”

영산강에 4대강 사업으로 2개의 보가 생기면서 블루길, 배스 등 외래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7일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가 조사한 ‘보 설치 전후 회귀성 어종의 이동경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전 9.7%를 차지했던 블루길, 큰입배스 2종이 보 완공 후 22%로 크게 늘었다”며 “외래어종이 작은 물고기를 먹어 치워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마트 본사·지점 13곳 압수수색

서울노동청,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의혹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받는 이마트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노동청 측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투입해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비롯한 동광주·구미·부천·신도림·동인천 등 지점 6곳, 이마트 노조 설립 저지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이다.

서울노동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특별근로감독에서 문제가 확인된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마트 측에서 증거제출을 회피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으며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 요원들을 일부 지원했다. DFC 요원들은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나 인터넷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복원하며 증거물 확보를 도왔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 관계 입증에 위해 관련 자료를 소환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25일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한 고용노동부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감독 대상을 전국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특별근로감독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연습뉴스

우주개발의 새역사가 시작되는 고흥!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우주항공 클러스터 고흥

우주과학관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고흥나로우주센터 (나로호 3차 발사 광경)

고흥군 GOHEUNG COUNTY